라파즈한라-동양시멘트, 전략제휴 모색

라파즈한라와 동양시멘트가 지분투자를 계기로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실뱅 가르노 사장 등 라파즈한라 임원진과 노영인 사장 등 동양시멘트 임원 15명은 최근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갖고 전략적 제휴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사는 유연탄 등 원료 공동구매와 원가절감을 포함한 경영 노하우 공유 등 구체적 제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프랑스 라파즈그룹에서 동양시멘트에 파견한 마크 자로 통합담당 임원이 제휴방안 마련을 총괄한다.

양사의 제휴 움직임은 라파즈한라가 최근 일본계 현지법인인 라파즈아소와 함께 라파즈그룹의 동양시멘트 출자지분 1억500만달러(지분율 25%)를 인수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라파즈한라는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양시멘트와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합병은 라파즈한라가 적극적인 반면, 동양시멘트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08>